

詩

“인생 마지막까지 시를 쓰고 시와 함께 살고파”

손광은 전남대 명예교수 등단 50년 ... 제자들이 문학세계 조명 책 펴내

최근 제자들이 등단 50주년을 맞는 스승의 문학세계와 생을 조명할 책을 펴내, 지역 문단에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보성 출신 손광은(80) 전남대 명예교수와 그의 국문과 제자들과 후학들. 손 교수는 지난 1962년부터 3년에 걸쳐 '제3광장', '산책', '나의 반란'이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상재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당시 현대문학 추천은 3회에 걸쳐 진행될 만큼 엄격하고 까다로웠다. 3회라는 횟수는 문단 데뷔가 한 번의 요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평생 문학의 길을 가려는 의지와 꾸준한 습작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고행의 관문이다.

더욱이 다형 김현승은 한국현대시단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지성 시인으로, 선비정신과 지식적 안목으로 문학세계를 꿰뚫어 열여간 시인이었다. 그에게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인 동시에 비로소 시인으로 살아도 된다는 '자격증'을 수여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손광은의 시와 시세계'(태학사)로 명명된 책은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에서 지역문학과 문화를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시도로 구상되었다. 책은 '어문논총'(제26호·2014년)에 수록된 논문과 시인론, 기존에 쓰였던 글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서에는 '전통적 원형과 존재론적 기원의 발견'(유성호), '물의 형상성과 건강한 생명력'(임환모), '노정 손광은의 남도기행 시집의 민속학적 의의'(나경수), '손광은 시의 토포필리아와 南道'(김동근) 등이 많이 실려 있다.

손 시인은 "스승이신 다형은 시(詩)나 제자를 대하는 면에서 엄격했다. 창작한 시를 보고는 일절 좋다, 나쁘다 가타부타 말씀을 안했다. 그것은 스스로 깨우치라



손광은 교수



는 뜻이었는데 시를 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제자들이 이렇게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연구서를 발행해준 데 대해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만년에 이른 문학 인생이지만 마지막까지 시를 쓰고 시와 함께 하는 생을 살겠노라"고 밝혔다. 손 시인은 천성이 시인의 풍모를 지닌 문인이다. 소리를 좋아하는 나머지 향토적

가락을 토대로 정갈한 시를 썼었다. 그가 '민속시'로 문학을 집대성한 최초의 민속 시인으로 불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까지 손 시인은 '과도의 말', '고향 앞에 서서', '그림자 빛깔', '내 마음 속에 눈부신 당신' 등 모두 6권의 시집을 펴냈다. 그의 시 세계는 전통을 탐색하면서도 고향을 매개로 한 존재론적 탐구에 닿아 있다. 또한 감성을 토대로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건강한 생명력으로 형상화하기도 했다.

제자인 임환모 국문과 교수는 "선생이 교육자로서 남기고 간 인간적 품도와 인품이 후학들에게 큰 자산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이 책이 광주·전남의 지역문학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학사의 연구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보성군 노동면 금호리 생가에 세워진 손광은 대표작 '보리타작' 시비.

호남시조시인협회 제45호 작품집 '시조문예' 발간

호남시조시인협회(회장 이병휘)가 제45호 작품집 '시조문예'를 발간했다.

'특집1'에는 제22회 시조문예상 수상자 조선희 시조시인의 시조와 심사평, 수상 소감이 실려 있다. '특집2'에는 故 동암 김병호 원로 시조

시인 추모시조들이 실려 있다.

'특집3'은 원광대 신방과 명예교수이자 가람시조문학회 회장인 박영학 시조시인의 시조문학 평론 '맛춤



와 맛춤'이 수록됐다. 표지화는 협회 회장인 이병휘 화백의 그림이 장식했다.

이밖에 제10회 시조 시서화전 사진, 제4회 찾아가는 전국시조백일장대회 사진, 시조문학 강연 사진 등이 수록돼 있어 협회 활동을 가늠할 수 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소원굿·사물놀이 '종~打'

국악전수관서 국악 한마당 18일 올 첫 공연 '굿패 마루'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는 흥겨운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지난 2002년 개관과 함께 진행하기 시작한 '목요일국악한마당'(사진)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연 횟수만 500여회에 달한다. 또 공연마다 평균 130여명이 객석을 메우며 매년 공연장을 찾는 단골 관객들도 많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이 2016년 목요일

린 국악한마당 개막 공연을 갖는다. 오는 18일 오후 7시 열리는 올해 첫 공연의 주인공은 풍물 세상 '굿패 마루'다. '열림굿, 비나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의 무병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소원굿과 사물놀이, '打& DREAM'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사)풍류회 '죽선

방'을 초청해 '영산회상'을 공연하는 등 정통과 퓨전 국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단체들이 40여차례 무대에 설 예정이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연면적 2,000㎡(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150석 규모의 공연장과 국악전수실, 국악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

공연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중한 이들과 함께 '문화나무' 키워요

광주문화재단, 월 1만원 기부 '문화보듬 10000운동'

'소중한 이들과 함께 키우는 문화 나무.'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말부터 시민 1만명이 한달 1만원 기부로 광주 문화예술의 나무를 키워가는 광주형 메세나 '문화보듬 10000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 문을 연 기부 공간 '문화보듬 1000센터'에서

운영중인 '문화의 숲에 씨앗 심기'를 포함,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다양한 체험형 기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나의 꿈, 나의 꿈'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한 달에 만원씩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씨앗심기' 체험을 통해 아이가 직접 쓴 이름표를 단 새싹이 트고 문화나무로 자라난다. 재단은 생일, 어린이날 등 기념일이 되

면 선물이나 어린이공연 티켓, 꿈나무가 보내는 편지 등을 통해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너랑 나랑 기념일 나무'는 기념하고 싶은 날짜를 D-day로 정해 커피 나무를 키우는 기부 프로그램으로 기부자가 100원, 200원, 300원 등 기념일을 사전에 정해 기부에 참여하며, 두 사람의 이름으로 '문화나무'를 키운다. 문의 062-670-742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29기 정규·SEMI 강좌

내달 13일까지 카페 '노블'

리얼리티(실천)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29기 강좌를 연다. 내달 13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정규강좌와 SEMI강좌로 나눠 진행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인문학, 중국역사, 철학, 음악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동양 철학' 시간으로

조우진 교수가 '주역(周易)의 음양·사상을 읽다II'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화요일은 '중국역사' 시간으로 이영란 교수가 '중국역사의 흐름을 바꾼 여인, 여인들'을 주제로 중국역사 속에 드러난 여인들의 이야기를 강의한다.

수요일은 '피에르 브루디의 사유의 지평'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이룬 스타디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혜영 교수와 안철 클래식 음

악해설가가 각각 '본질적인 확고한 자 기강정은 어떻게 얻어지는가?'와 '클래식 음악과 친화하기VII-영화 속의 모차르트'를 주제로 강의와 감상이 이어진다.

토요일(오후 5시)과 일요일(오전 9시)에 진행되는 SEMI강좌는 '덕후 워리어의 무비토크-명화여 다시 한 번'과 '인문여행-근대유물탐방' 등이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